

# 실속형 멀티제품 인기

### 뷰티 디바이스 제품 · 가전기기 등 실용성에 경제성까지 갖춰

경기 전체의 장기화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여러가지 기능을 갖춘 멀티제품들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1.8%로 지난 2010년 대비 2.2%나 하락했다. 경기 한 축인 민간소비가 연이어 줄어드는 것은 불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제품들을 갖춘 실속형 멀티제품의 경우 실용성은 물론 경제성까지 갖춰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남녀 멀티기능 제품들의 경우 실속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다양한 기능을 겸비한 뷰티 디바이스 제품이 인기다.

출시 이후 월평균 300% 이상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프롬에스티(Froms)는 뷰티에 헬스를 접목한 신개념 뷰티 디바이스로 피부 관리에 가지 않아도 손쉽게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다.

특히 프롬에스티 진공 피부운동기는 피부에 가장 적합한 진공을 이용한 이완과 수축 작용을 통해 피부 표면은 물론, 피부의 힘과 탄력을 결정짓는 피부 속 콜라겐을



프롬에스티

깨워 지친 피부를 탄력 있고 생기 있는 피부로 만들어준다.

또 미세진공으로 목 부위의 림프관을 자극해 노폐물을 제거하고 림프가 원활하게 순환하도록 해 피부톤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

남성들을 위한 울인원 멀티 스킨케어 제품도 불황 속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오트세이 블루' 네지 파워 울인원 에센스는 남성 피부를 위한 7가지 피부 활력 에너지(수분, 보습, 탄력, 주름, 피지, 미백, 진정)를 한 번에 제공하는 기능성 제품이다.

피부 관리가 어렵거나 귀찮았던 남성들의 헬스팩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만능 멀티밤도 남성 소비자들의 눈길을 끈다. 닥터자르트 '세라파

이딘 오일 밤'은 체온이 닿으면 고체 형태 밤이 사르르 녹으면서 오일처럼 변해, 매끄럽게 바를 수 있다. 액체형 오일보다 사용량 조절이 쉽고 얼굴 외에 건조함이 심한 어느 부위에도 사용할 수 있어 겨울철에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다.

가습기나 면도기 등 가전업계에 서도 주요 기능에 부가 기능을 추가한 제품이 소비자 이목을 사로잡는다.

다이스 '하이제너 미스트'는 가습기와 선풍기 기능을 결합한 제품이다. 자체 개발 자외선 세정 기술을 적용해 물 속의 박테리아를 99.9%를 제거해 살균된 수증기를 방출 전체에 고르게 전달한다.

여기에 선풍기 기능을 갖춰 추고 건조한 겨울과 더운 여름까지 사계절 내내 사용이 가능하다.

필립스코리아 '블릭 & 스타일' 면도기는 면도와 피부관리를 동시에 해결한다. 이 면도기는 자극이 나 상처없이 얼굴 곡선을 따라 깔끔한 밀착 면도가 가능하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경기불황이 계속되면서 높은 효율성과 경제성을 갖춘 멀티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 중소건설업체 경기 전망 급락

### 1월 CBSI 73.5로 전월 대비 13.2p 하락... 1년만에 최저

중견·중소 건설업체의 CBSI(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가 최근 1년여 사이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월 CBSI가 전월 대비 13.2p 하락한 73.5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상 1월에는 공사 발주가 줄어드는 계절적 요인으로 CBSI가 전월보다 하락하는데 올해는 감소 폭이 더 컸다"며 "최근 주택 공급 과잉 우려, 금융정책 기조 변화, 시종급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업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모든 기업의 지수가 하락한 가운데 중견·중소기업의 지수 하락이 두드러졌다.

대형업체는 지난달보다 7.7p 하락해 지난해 11월과 비슷한 92.3p를 기록했다. 하지만 중견업체와 중소기업체는 각각 17.3p, 15.1p 하락한 76.5와 15.1p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최근 12개월, 14개월 내 최저치다.

2월 CBSI 전망치는 12월 대비 8.6p 낮은 78.1을 기록해 1월보다는 양호하겠지만, 여전히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 연구위원은 "2월까지의 공사물 과잉 우려, 금융정책 기조 변화, 시종급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성주 기자



활기 넘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민중 대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1월 15일 오후 대전 유성구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제수용, 선물용 과일을 사고 파는 상인과 시민들로 활기가 넘치고 있다.

# 중기 융·복합형 과제 R&D 협력체간 공동기술개발 지원 사업 신청접수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융복합기술개발 역량 강화와 개방형 R&D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런 사업은 기술수요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융·복합형 과제에 대해 R&D 협력체간(산·연, 산·학, 산·산 등)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전문가그룹이 도출한 53개 과제와 중소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한 130개 과제 등 183개의 지정과제가 대상이며 지원 금액은 2년간 최대 6억원(총사업비의 65%)이다.

분야별로는 기계소재(55개), 전기전자(45개), 바이오의료(29개), 정보통신(25개), 화학(21개), 에너지자원(5개), 지식서비스(3개) 등이다.

신청은 3월3일까지이며, 온라인 시스템(www.smech.go.kr)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3~5월 평가 절차를 거쳐 6월중 지원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063-210-6452)로 문의하면 된다. /신광영 기자

# '전북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지원단' 활동 시작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분부는 '전북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지원단' (경영지원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전북 경영지원단은 변호사 5명(김종오, 이덕춘, 조근원, 최혜옥, 홍의진), 회계사 1명(김수정), 세무사 2명(김미경, 김생수), 변리사 1명(정진석), 노무사 2명으로(김운정, 이명재) 등 11명으로 꾸려졌다.

경영지원단은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되며 상담, 자문, 서식작성지원 방식 등의 경영지원과 분야별 이슈 및 사례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수행한다.

상담은 무료이고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은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가능하다. 또한 사이버상담은 수시로 가능하다.

또한 월요일 법률, 화요일 세무, 수요일 지식재산, 목요일 노무, 금요일 회계 등 소장·의견서 등 서식작성 지원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를 통해 신청하거나, 전북지역본부(063-214-6609)로 문의하면 된다. /신광영 기자

# 롯데, 순환출자고리 67개 총수익가 지분 2.4% 불과

롯데그룹이 2.4%에 불과한 총수익가 지분으로 86개 국내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복잡한 출자구조에 있다.

롯데는 국내 대기업 집단 중 순환출자고리가 가장 많고 계열사지분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롯데의 해외계열사 소유 현황'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순환출자고리는 모두 67개다. 이는 전체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 수(94개)의 71.3%를 차지한다.

16개 해외 계열사를 통해 86개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독특한 출자구조 탓에 계열사 간 출자 단계도 가장 길었다.

롯데는 최대 24단계의 출자 단계를 보유하고 있다. 롯데의 총수익가 지분율은 2.4%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롯데가 그룹 전체를 마치 '가족기업'처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계열사지분율에 있다.

롯데그룹의 계열사지분율은 82.8%로 대기업집단 중 가장 높았다.

롯데의 내부지분율도 대기업집단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해외 계열사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롯데의 내부 지분율은 82.9% 수준이지만 해외 계열사를 포함해 계산하면 롯데의 내부지분율은 85.6%까지 높아진다.

롯데는 상장회사 비율도 대기업집단 중 가장 낮은 편이다. 국내 86개 계열사 중에서 상장사는 8개(9.3%)에 불과하다. /이성주 기자

# "대 이란 수출, 향후 3년내 3배이상 확대"

### 정부, 양국 경제공동위 전 전략 점검... 교역 규모 확대 목표치 합의의사록 반영 계획

정부가 올해 대(對) 이란 수출을 지난 2012년 수준까지 회복하고, 향후 3년 내 현 수준의 3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1일 밝혔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범부처 합동 '이란 시장 진출 성과사업 점검회의'를 열고 대 이란 수출에서 이 같은 목표치를 설정하고 부처간 협력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주재로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석해 오는 29일 이란 현지에서 열리는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 를 앞두고 우리 기업의 대(對) 이란 진출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는 한·이란 경제공동위에서 이란측과 무역규모 확대를 위한 목표치

를 합의의사록에 반영하고, 향후 이행 상황을 상호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번 경제공동위 개최를 계기로 범부처 합동 ▲산업·무역·중소기업 ▲에너지·자원 ▲건설·환경 ▲해운·항만 ▲보건·의료 ▲금융·재정·관세 ▲문화·정보통신기술(ICT)·과학기술·전자정부 등 7개 분야 구성을 이란측과 협의 중이다.

현재 전자무역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협력, 금융지원약정, 담수·발전사업 협력 등 실제 계약을 포함해 총 21개 양해각서(MOU)를 체결키로 했다.

또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등 소프트 파워(Soft Power) 확산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란은 올해 5.8% 내년 6.7% 성장이 기대된다"며 "특히 에너지와 사회인프라개선을 우

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자동차·석유화학 등 생산 확대를 위한 설비 및 기자재와 화장품, 가전제품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수입 확대가 예상돼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지원책을 집중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이 상반기 중 이란중앙은행과 기본금융약정을 체결해 50억 유로를 공급할 계획이며, 무역보험공사도 한·이란 경제공동위 당일 이란 재무부와 기본금융약정을 체결해 20억 달러 규모의 무역보험을 공급한다.

또 소비자, 기자재 등 단기 수출 확대를 위해 수은이 2억 달러 규모의 전대 라인도 개설하기로 했다.

우 차관은 "한·이란 경제공동위를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반 조성 과 수출 확대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마음]**

그 언제나처럼  
한결 같은 마음으로  
고객님의 걸을 지켜드리며  
전북은행이 되겠습니다

**전북은행**

1588-4477 [www.jbbank.co.kr](http://www.jbbank.co.kr)